

희망 찾아 온 낯선 땅...“차별 안받고 월급 제때 받기를”

코로나 뚫고 올해 첫 광주 들어온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바람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숨통...“3년간 열심히 돈 벌어 고국 돌아가야죠” 광주고용청 관할 1만5700명 추산...집합생활에 방역·근로환경 개선 시급

코로나 장기화로 틈 뚫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올 들어 다시 시작됐다. 신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크게 줄면서 속을 태웠던 산업 현장, 농가 곳곳에서는 숨통을 트게 됐다. 안도감도 나온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분야) 직종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이직 현상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 확대 방안 뿐 아니라 이들의 근로 환경 개선 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공장으로 입국, 10일 간의 자기격리 기간을 거쳐 광주지역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전문 취업비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 비자다. 코로나 상황을 뚫고 입국한 이들은 앞으로 3년 간 광주지역 산업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코로나 발생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매년 5만명에 달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 이후 지난 2년간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외국인 인력

에 의존해온 소규모 영세 산업장은 인력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농·어촌의 경우 지난 2020년에는 입국자가 한명도 없었고 지난해 봄·가을에도 고작 6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만이 전남지역 농·어촌에 머무르면서 일손을 메우다 보니 이주노동자 공백 현상으로 인한 농사 포기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일손으로 움직이는 중소 소규모 산업현장들은 하루빨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본격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불가능해지자 중소기업들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3년의 기간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가 한달 후 비자연장을 해 다시 들어오기로 한 ‘성실근로자’들조차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보니 현장의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전국적으로 5만9000명(신규 입국자 3만5500명, 재입국자 2만35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까지 광주와 전남·북 지역 등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사업체 5500곳에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를 1만 5700여명으로 추산한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외국인 인력이 지역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현장과 농촌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불안함도 엿보인다. 이들은 동행한 통역사를 통해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역사를 통해 전해들은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렵게 입국한 만큼 차별 받지 않고 일하다 돌아가고 싶다”면서 “3년 간 월급을 제 때 받아야”고 말했다.

앞서 입국했다가 귀국한 같은 국적 출신 노동자들의 불편한 생활 실태를 전해들은 노동자들도 있어 걱정하는 분위기도 전달됐다. 이들이 입국한 날 광주를 떠났던 캄보디아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고충이 알려졌고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의 불편한 실태 등도 전해졌다. 기숙사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추운 겨울을 지내야 했다는 불만도 들었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 아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 방역과 건강관에 대한 소홀한 대처도 우려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집합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감염 우려, 방역 배제, 낙인·혐오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근로 환경 개선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살 딸 목숨 앗아간 범인은? 아버지였다

‘나주 모녀 사망’ 징역 7년 선고

‘나주 모녀 사망’ 사건(광주일보 2021년 12월 9일 6면)과 관련, 8살 어린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아버지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20년이 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의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이들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

로 이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부부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약을 먹고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으며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전날 밤 집 컴퓨터로 작성한 유서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한 점, 질식사한 8살 딸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DNA)만 검출된 점, 아이한테 신경 안정제를 해열제에 섞어 먹인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그릇된 판단을 했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린 딸의 생명을 앗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도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흥 들녘 월동하는 독수리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독수리 무리가 9일 장흥을 들녘에서 월동하고 있다. 독수리는 몸길이 102~112cm 정도로 대개 암갈색 깃털을 가지고 있다. 독수리는 날이 풀리는 3월쯤 고향인 몽골로 돌아간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진도 해상서 선박 충돌 전복 1명 사망

진도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 사고가 발생, 어선 1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숨졌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10분께 진도군 장도 북동쪽 3.5km 해상에서 72t급 화물선과 어선 A호(9.77t·승선원 5명)가 충돌, A호가 전복됐다. 해경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을 구조했다. 선장 B씨는 조타실에서 승선

채 발견했다. 해경은 구조 당시 주변의 어구 및 그물 등 장애물로 선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다 선체 외부를 절단하고 들어가 선원들을 구조했다. 해경은 선체를 인양해 목포로 옮기는 한편, 화물선과 충돌했다는 선원 진술 등을 토대로 선박 간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보시스템 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극단 선택 버스기사 유족·노조, 노동청에 진정서

채용 과정 금품 받은 혐의로 회사 관계자 등 경찰에 고발도

버스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에 힘들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광주일보 2021년 6월 23일 6면) 유족과 노조가 해당 버스회사측을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당 버스회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북부경찰에 따르면 유족과 해당 버스회사 노조는 정규직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 승진 버스기사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행진 혐의(채용절차법·근로기준법 위반·배임수재 등)로 버스회사측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북부경찰에 같은 사안으로 고발장을 제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유족 등은 승진 A씨가 정규직 기사 채용을 위해 버스회사 관계자 등에게 350만원을 건네줬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출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

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동료기사를 통해 버스회사 관계자에게 정규직 채용을 위해 금전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난 5월 11일 350만원을 전달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또 A씨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후 발생한 연이은 버스 교통사고와 관련, 회사 보험이 아니라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며 관련 수사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불공정 관행 등에 고민하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유족들 주장이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상태로 범죄 혐의점 여부를 살펴보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